

李觀의 文學觀과 社會詩*

吳憲必**

<목 차>

1. 緒論
2. 李觀의 文學觀
3. 李觀의 社會詩
 - 3.1 苛政 비판과 民生苦에 대한 共感
 - 3.2 爲政者 비판과 社會 문제 폭로
4. 結論

1. 緒論

李觀은 北宋 仁宗 시대의 개혁성향의 사상가이며, 교육가인 동시에 文人이었다. 李觀은 制舉考試에 합격하지 못하자 학술상의 성취로 후세에 이름을 남기겠다는 다짐을 하고, 주로 후학을 가르치고¹⁾ 저술 집필에 전력투구하였다. 그는 《潛書》, 《禮論》, 《明堂定制圖序》, 《平土書》, 《廣潛書》, 《易論》, 《富國·強兵·安民策》, 《慶曆民言》, 《周禮致太平論》 등을 저술하여 당시 弊政을 비판하고 濟民救國의 주장을 피력하였다. 그에 대한 연구는 문학적 측면보다는 范仲淹의 개혁사상을 계승한 사상가로서의 이미지가 강하여 주로 정치·경제·교육·철학·국방 등의 사상적 측면에 치중하여 진행되어 왔으

* 본 연구는 2013년도 덕성여자대학교의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덕성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1) 盱江書院을 설립하여 후학을 양성하였으므로 盱江先生으로 불리우고, 太學說書, 通州海門主簿兼太學說書 등을 역임하였다.

며, 문학적 측면에서의 연구는 미미하게 진행되어 온 게 사실이다.²⁾ 그러나 그의 《李觀集》³⁾에는 禮論 7편, 易論 13편, 刪定易圖序論 6편, 周禮致太平論 51편, 明堂定制圖序, 富國策 十首, 強兵策 十首, 安民策 十首, 平土書, 慶曆民言 30편, 記 12편, 序 7편, 表 1편, 啓 2편, 書 28편, 雜文 13편, 墓碑·銘·墓表·墓誌 15편, 常語 3편과 古體 66수, 五言二韻 6수, 五言四韻 51수, 五言六韻 5수, 五言八韻 1수, 五言十韻 2수, 七言二韻 76수, 七言四韻 80수, 七言八韻 1수 등 300여 수 수록되어 있고, 적지 않은 文學論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北宋 文壇에서 문장가·시인으로서의 그의 위상은 간과할 수 없다고 하겠다.

이러한 의미에서 本稿에서는 李觀의 문학적 위상을 평가하는 선행단계로서 李觀의 文學觀을 고찰하고, 300여 수의 詩 가운데서 社會詩를 중심으로 하여 그의 北宋 사회에 대한 現實認識이 그의 시에 어떻게 形象化되었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李觀의 文學觀

李觀의 社會詩를 고찰하기에 앞서 우선 李觀의 文學觀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왜냐하면 한 시인의 文學觀은 시 작품 창작의 모태이므로, 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시인의 文學觀에 대한 탐색이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이다.

먼저 <上李舍人書>⁴⁾에 주목하여 보기로 하겠다.

2) 문학적 측면의 연구로는, 박사논문은 전무하며, 석사논문으로는 吳智昌의 《李觀詩歌研究》(南昌大 석사논문, 2007), 段守範의 《李觀詩歌研究》(山東大 석사논문, 2008), 歐婷婷의 《李觀詩歌創作研究》(廣州大 석사논문, 2009) 등이 있고, 소논문 10여 편 정도가 있을 뿐이며, 국내에서는 사상적 측면의 연구가 몇 편 있고, 문학적 측면의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3) 현존하는 李觀 文集은 明代 成化 年間に 左贊이 編刻한 것이다. 1980년 王國軒이 商務印書館 《四部叢刊》影印 明代 成化 左贊 刻本을 底本으로, 明 正德 13년 孫復刻本·萬里孟情緒刻本, 清 光緒 29년 謝甘湯刻本과 宋 呂祖謙의 《宋文鑑》을 참조하여 校勘하였다. 本稿는 王國軒이 교감한 《李觀集》(中華書局, 1981)을 底本으로 하였다.

신령함이 만물을 만들어내는 방법과 현인들이 만물을 다스리는 방법은 궁극적으로 하나이다. 현인의 사업에서, 文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없다. 文이란 것이 어찌 단지 筆札章句일 뿐인가! 진실로 만물을 다스리는 도구인 것이다. 그것은 크게는 禮의 순서를 핵심으로 하며, 樂의 화해로움을 선양하고, 政典을 수록하며, 刑書를 꾸민다. 위로는 역사가 되어 혼란을 틈탄 자를 삼가게 하며, 아래로는 詩가 되어 德을 잃은 자를 警戒한다. 밝혀 詔誥⁵⁾가 되면 國體가 분명해지고 관리의 직책이 완비해진다. 열거하여 奏議가 되면 결점이 있는 政事가 고쳐지고, 민생고가 드러난다. 행동거지가 올바르지 않은 것을 文이 아니면 어떻게 구할 수 있겠는가?—무릇 천하가 다스려지면 文治教化가 성하게 되고, 현인이 통달하게 된다. 천하가 어지러워지면 文治教化가 쇠퇴하게 되고, 현인은 막히게 된다. 국가의 상황을 살펴보고자 하면 文을 살펴보면 된다.⁶⁾

이 글에서 李觀은 먼저 文은 '단순히 筆札章句가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는 도구(治物之器)'라고 하면서, 이어서 文의 범주를 禮·樂·刑·政·詩·史로 정함으로써 文의 사회적 작용을 강조하고 있다. 바로 심미주의적 文學觀에서 벗어나 文治教化를 중시하는 功利主義의 文學觀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詩가 德을 잃은 자를 警戒한다.'라고 피력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점은 <毛詩序>의 '정치적의 잘잘못을 바로잡고, 천지를 움직이고, 귀신을 감동시키는 데 시만큼 가까운 것이 없다. 先王들은 이것으로써 부부를 다스리고, 효도와 공경을 이루며, 人倫을 두텁게 하고 교화를 아름답게 하였으며, 풍속을 올바른 곳으로 옮겼다.'⁷⁾라고 한 儒家의 政教中心說을 계승한 것이라고 하겠다.

다음 <上宋舍人書>를 통해서도 李觀가 儒家의 功利主義 文學觀을 계승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王國軒 點校,《李觀集》(中華書局, 1981), 288쪽. *이하 서명만 밝힘.

5) 詔는 임금의 말[詔令]을 백성에게 알리고자 적은 문서이며, 誥는 임금의 布告文을 가리키는데, 산문 문체의 하나이다.

6) 神所以造萬物, 賢所以治萬物, 其致一也. 賢人之業, 莫先乎文. 文者, 豈徒筆札章句而已, 誠治物之器焉. 其大則核禮之序, 宣樂之和, 繕政典, 飾刑書. 上之爲史, 則怙亂者懼; 下之爲詩, 則失德者戒. 發而爲詔誥, 則國體明而官守備; 列而爲奏議, 則闕政修而民隱露. 周還委曲, 非文何濟? — 大抵天下治則文教盛, 而賢人達; 天下亂則文教衰, 而賢人窮. 欲觀國者, 觀文而可矣.

7) 故正得失, 動天地, 感鬼神, 莫近於詩. 先王以是經夫婦, 成孝敬, 厚人倫, 美教化, 移風俗.

漢代 초기에 이르러 스승 大儒는 아직 다 쇠락하지 않았고, 계승하여 흥성시킨 자는 모두 先聖을 칭송하며 仁義를 근본으로 삼을 줄 알았다. 수백 년 간 집필한 글은 채택할 만한 것이 많았다. 魏晉 이후에 남북에 걸쳐 이 文章의 道の 積弊가 나날이 심해졌다. 높은 관리들은 조정에 들어서면 나라를 다스리는 도구(법령)에 마음을 쓰지 않고, 서로 老佛의 쓸데없는 이야기를 공경하였다. 군주와 태자들은 간사한 소리와 음란한 색을 다투어 과시하며 재치있는 생각으로 삼았다. 헛되고 황당하고 교묘한 허위가 義理를 없애지게 하였다. 근본을 좇는 백성들은 비록 귀와 눈이 있었지만, 보고 듣는 것을 회복할 수 없었다. 하늘이 唐 황실을 도와주는 은혜를 입어, 大賢을 낳아 그것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이백과 두보가 앞서서 선도가 되었고, 한유와 유종원이 뒤에서 맹주가 되었다. 간사한 것을 제거하고 올바른 것을 숭상하니, 사망에서 쫓게 되었다. 堯舜의 道는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졌으며, 周公과 공자의 가르침은 시들었다가 다시 번영하였다.⁸⁾

여기에서 李觀은 儒家의 功利主義 文學觀의 입장에서, 魏晉南北朝의 清談 文風과 齊梁 宮體詩에 대해 '魏晉 이후에 남북에 걸쳐 이 文章의 道の 積弊가 나날이 심해졌다. — 간사한 소리와 음란한 색을 다투어 과시하며, 헛되고 황당하고 교묘한 허위가 義理를 없애지게 하였다.'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이것은 唐代 陳子昂의 관점과 맥을 같이하고 있는 것이다.⁹⁾ 魏晉南北朝 시대는 《詩經》의 현실주의 전통을 계승하지 않고, 더욱더 艷麗浮華를 추구하다보니 文章之道的 積弊를 노출할 수 밖에 없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어서 당대의 李白·杜甫·韓愈·柳宗元이 문학의 正道를 추구함으로써 堯舜之道와 周孔之教가 회복되었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封建政敎의 관점에서 仁義를 기준으로 韓愈·柳宗元의 문장과 李白·杜甫의 시를 긍정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8) 《李觀集》290-292쪽 : 至於漢初, 老師大儒未盡凋落, 嗣而興者, 皆知稱先聖、本仁義, 數百年中, 其秉筆者, 多有可采. 魏晉之後, 涉於南北, 斯道積羸, 日劇一日. 高冠入朝, 不恤治具, 而相高老佛無用之談; 世主儲王, 而爭誇奸聲亂色以爲才思. 虛荒巧僞, 滅去義理. 俾元元之民, 雖有耳目, 弗能復視聽矣. 賴天相唐室, 生大賢以維持之. 李杜稱兵於前, 韓柳主盟於後, 誅邪賞正, 方內向服. 堯舜之道, 晦而復明; 周孔之教, 枯而復榮.

9) 문장의 도가 폐하여진 지 오백년이 되었습니다. 漢·魏의 風骨이 짙 · 宋代에는 전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문헌에서 찾아볼 만한 것은 있었습니다. 제가 일찍이 한가할 때에 齊·梁 사이의 시를 보니, 文彩는 화려함만을 다투고 번거로우나, 興寄가 모두 끊어졌습니다. (文章道弊, 五百年矣. 漢、魏風骨, 晉、宋莫傳, 然而文獻有可徵者. 僕嘗暇時觀齊、梁間詩, 彩麗競繁, 而興寄都絕.) <與東方左史虬修竹篇序>

北宋 詩文革新運動의 이론과 일치하는 것이다.

李觀가 위와 같이 詩文의 文以載道를 중시하며 詩文의 내용을 중시하였다는 사실은 다음의 글을 통하여서도 입증할 수 있다.

의외로 천하의 넓은 곳에 퇴폐한 풍조가 아직 끊어지지 않았다. 근년 이래, 新進之士가 다시 그것에 선동되었다. 經術을 추구하지 않고 조그마한 이야기를 주워서 새것으로 삼고, 道理를 생각하지 않고 전적으로 화려하게 꾸미려고 한다. 千句萬言이 首尾를 분별하지 못한다.¹⁰⁾

이 글에서 新進之士는 西崑派 시단을 대표하는 楊億·劉筠 등을 가리키는데, 李觀는 晚唐 李商隱의 시를 모방하여 對偶를 중시하고 典故를 많이 쓰며 감상적이고 화려한 無病呻吟의 시들을 표방하던 西崑派의 浮艷한 詩風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사회 현실로부터 遊離되어 지나치게 형식적 조탁만을 강조하는 글쓰기를 비평하면서 '詩言之說'로의 회복을 懇求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通變救弊의 정치사상¹¹⁾을 지닌 李觀는 당시 문단의 因襲模倣을 비판하고 詩文의 變革創新을 주장하였다.

오늘의 배우는 자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글을 짓지 않겠는가? 대저 孟子를 억지로 모방하고, 昌黎에게서 무리하게 빼앗는데, 만약 글을 쓰는 도리가 여기에 그칠 따름이라면 古文 십 수 편을 암송하여 남쪽을 부수어 북쪽을 매우듯 임시변통하며 현 것을 물들여 새 것으로 삼으면 죄다 名士라 할 수 있다. 어떻게 교묘함과 서투름을 분별한단 말인가? 내가 행하는 바는 이것과는 다른 것이다.¹²⁾

10) <上宋舍人書>, 《李觀集》290-292쪽 : 不意天宇之廣, 頹風未絕. 近年以來, 新進之士, 重爲其所扇動. 不求經術而摭小說以爲新, 不思理道而專雕鏤以爲麗. 句千言萬, 莫辨首尾.

11) <易論第八>, 《李觀集》41-43쪽 : 향구불변의 도리란 道의 근본이고, 道는 임기응변으로 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 이런 까닭에 임기응변이란 향구불변의 도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사정이 변하고 勢가 다른데 향구불변의 도리에 하나로 근본을 삼는 것은 마치 膠柱鼓瑟처럼 고지식하여 조금도 융통성이 없게 되는 것이다. (常者, 道之紀也, 道不以權, 弗能濟矣. 是故權者, 反常者也. 事變矣, 勢異矣, 而一本於常, 猶膠柱而鼓瑟也.)

12) <答黃著作書>, 《李觀集》321-324쪽 : 今之學者, 誰不爲文? 大抵摹勒孟子, 劫掠昌黎, 若爲文之道止此而已. 則但誦得古文十數篇, 拆南補北, 染舊作新, 盡可爲名士矣. 何工拙之辨哉? 觀之施爲, 異於是矣.

이 글에서 ‘맹자를 억지로 모방하고’ 라는 文句는 北宋 당시의 尊孟하는 풍조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李觀은 <常語> 등의 글을 통해서도, 尊周思想을 중심으로 맹자의 王霸論과 혁명론을 비판하면서 尊孟하는 무리들에게 警鐘을 울렸던 것이다.¹³⁾ ‘昌黎에게서 무리하게 빼앗는다.’라는 文句는 韓愈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¹⁴⁾ 당시 韓愈를 그대로 답습하여 독창성이 결여된 상투적인 논조에 빠진 문인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李觀은 또한 자신은 결코 그런 무리에 영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이다. 모방을 반대하고 創新을 강조하는 경향은 北宋 眞宗·仁宗 시기의 시문혁신운동의 보편적인 사상으로서 李觀 역시 이러한 시문혁신운동의 주도적인 동참자가 되었던 것이다.

李觀은 儒家의 政敎中心說 詩觀을 계승하고, 功利主義 文學觀을 제창하였다. 또한 宋代 初期 西崑派의 浮艷한 경향을 반대하고, 詩文의 文以載道를 중시하였으며, 당시 문단의 因襲模倣을 비판하고 詩文의 變革創新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3. 李觀의 社會詩

3.1 苛政 批判과 民生苦에 대한 共感

功利主義 文學觀을 지닌 李觀은 詩를 통하여 北宋의 가혹한 정치를 비판하

13) <常語·據宋余允文尊孟辯補>, 《李觀集》512-518쪽 : 오호! 오늘의 배우는 자들이 부화뇌동하는 것이 심하다! 맹자만을 옳다고 여기면서 六經을 그르다 하고, 王道만을 즐겨워하면서 天子를 잊어버린다. 나는 천하에는 孟子가 없어도 되지만, 六經이 없어서는 안 되며, 王道는 없어도 되지만 천자는 없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嗚呼! 今之學者雷同甚矣, 是孟子而非六經, 樂王道而忘天子. 吾以爲天下無孟子可也, 不可無六經, 無王道可也, 不可無天子.)

14) 李觀은 韓愈를 존송하며 文以載道를 선양하였으며, 創新을 추구하기 위하여 韓愈의 ‘陳言務去(진부한 표현을 없애라)’의 주장을 숭상하였다. 이와같이 李觀의 韓愈에 대한 평가는 매우 긍정적이었으므로 일부러 한유를 비판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고, 잘못된 정치로 말미암아 초래된 비참한 民生苦에 共感을 표시하였다.
먼저 <有感 三首 其一>¹⁵⁾ 작품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官家的的要寬徵.	조정에서는 분명하게 세금을 완화하라 하여
古時什一今更輕.	옛날 십분의 일세 보다 지금은 더 가벼워졌다고 하지만
州縣酷嫌民漸富.	주현에선 백성들이 조금 더 잘 사는 것을 몹시 싫어하여
幾多率斂是無名.	명목 없이 거두어들인 것이 그 얼마이던가!

이 시는 조정의 징세 완화 지시도 공염불에 지나지않으니, 주현의 酷吏는 이런저런 구실로 苛斂誅求하여 백성들을 도탄에 빠트리고 있다는 가혹한 정치를 비판하고 있다. 관리들의 가혹한 행태는 <秦人峰>¹⁶⁾ 시를 통하여 더욱 거세게 폭로된다.

秦法雖甚苛.	진나라 법은 비록 심히 가혹했지만
秦吏若猶拙.	진나라 관리들은 아둔해보였지.
山林不數里.	숲속 몇리 안 가도
俾爾逃得脫.	도망갈 수 있도록 해 주었지.
予觀後世事.	이 몸이 후대의 일을 살펴보건대
政令火烈烈.	政令과 役事가 불처럼 타올랐네.
苟非爲鬼神.	만약 귀신이 아니라면
何計避羈縲.	무슨 계책으로 굴레와 고삐를 피할 수 있으랴!

秦나라 관리들 보다도 더욱 혹독한 北宋 관리들에게 시달리고, 엄한 법령과 과중한 부역에 얽매인 백성들의 고통스런 삶이 처절하게 묘사되고 있다.

다음의 <村行>¹⁷⁾에서는 가림주구로 인한 백성들의 신세가 더욱 비통하게 묘사되고 있다.

15) 《李觀集》431-432쪽.

16) 《李觀集》379-380쪽.

17) 《李觀集》408쪽.

產業家家壞,	생업이 집집마다 무너지고
誅求歲歲新.	강제로 빼앗는 일은 해마다 새롭네.
平時不爲備,	평상시에 준비하지 않다가
執事彼何人.	일을 집행하는 사람은 그 누구인가?
朱戶仍奢侈,	붉은 대문 부잣집은 여전히 사치하지만
柴門轉萑貧.	사립문 누추한 집은 점점 가난해지네.
若非衢室畔,	백성들의 하소연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無用說悲辛.	비통함과 쓰라림을 말하여본 들 소용이 없으리.

제5,6구의 ‘朱戶仍奢侈, 柴門轉萑貧.(붉은 대문 부잣집은 여전히 사치하지만, 사립문 누추한 집은 점점 가난해지네.)’은 杜甫의 ‘朱門酒肉臭, 路有凍死骨.(붉은 대문 부잣집은 술과 고기 냄새 풍기는데, 길에는 얼어 죽은 뼈가 뒤굴고 있네.)’¹⁸⁾라는 詩句처럼 당시 빈부 격차가 심한 사회 현실 앞에서 가난에 허덕이는 백성들을 동정하고 있다. 백성들의 고통에 대한 하소연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사리사욕만 챙기는 爲政者들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李觀은 이러한 가혹한 정치가 계속 시행된다면 백성들은 결국 살아갈 방도를 잃어버려 도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寄上范參政書> 등에서도 우려를 표명하였다.

농사짓는데 밭은 더 주지 않고, 누에치는데 뽕나무는 더해주지 않으면서 거두어 들이는 수량은 해마다 배로 늘어난다. 옷은 기워 입고 밥도 굶으니, 열 집에 아홉 집은 비어 있다. 근본인 농사는 이미 고통스러우니 떠나서 末業을 좇네. 또 末業을 좇아 역매이니 도적이 되지 않고서 장차 무엇을 해야 한단 말인가!¹⁹⁾

이어서 <哀老婦>²⁰⁾에 초점을 맞춰보자.

18) <自京赴奉先縣詠懷五百字>

19) <李觀集>299-301쪽 : 農不添田, 蠶不加桑, 而聚斂之數, 歲月倍增. 輟衣止食, 十室九空, 本之既苦, 則去而逐末矣. 又從而籠其末, 不爲盜賊將何適也!

20) <李觀集>381-382쪽.

里中一老婦，
 行行啼路隅。
 自悼未亡人，
 暮年從二夫。
 寡時十八九，
 嫁時六十餘。
 昔日遺腹兒，
 今茲垂白鬢。
 子豈不欲養，
 母豈不懷居。
 絲役及下戶，
 財盡無所輸。
 異籍幸可免，
 嫁母乃良圖。
 牽車送出門，
 急若盜賊驅。
 兒孫孫有婦，
 小大攀且呼。
 回頭與永訣，
 欲死無刑誅。

마을에 한 할멈이 있는데
 가고 가면서 길 모퉁이에서 우네.
 스스로 미망인임을 슬퍼해 왔는데
 노년에 두 번째 지아비를 섬기게 되고 말았네.
 18, 9세에 과부가 되었다가
 60여 세에 개가하네.
 옛날 유복자가
 지금은 흰 살쩍을 더부룩하게 늘어뜨렸네.
 아들이 어찌 부양하고 싶지 않으며
 어미는 어찌 편안한 곳을 생각하지 않으리오!
 요역이 가난한 백성에게 미치나
 재산이 다하니 바칠 것이 없네.
 호적을 달리하면 다행히 면할 수 있으니
 어미를 개가시키는 것이 좋은 방법이네.
 수레를 끌며 문을 나서 보내는데
 급히 도적처럼 말을 몰아 빨리 달리게 하네.
 아들 손자 며느리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매달리며 탄식하네.
 고개 돌려 영원히 이별하는데
 죽고 싶어도 죽게 될 형벌이 없네.

이 시는 樂府詩로서, 錢鍾書도 이 시에 대해 높게 평가한 것처럼²¹⁾ 혹독한 부역 때문에 60여 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개가할 수밖에 없는 老婦의 비통스런 운명이 절실하게 묘사되고 있다. 18,9세에 과부가 되어 자식들을 혼자 부양하면서 한 평생 힘들게 살아왔건만, 노년에 다시 부역의 압박으로 가족들과 생이별해야 하는 아픔이 얼마나 비참한가! 개가해야만 감당할 수 없는 부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현실 앞에서 부역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급히 개가를 원하는 자식의 마음은 얼마나 참담한가! 李觀은 北宋 당시 부역이 빈번하여 농민들의 힘은 다하고, 賦稅가 무거워 가난에 허덕여야 했던 현실을 痛感했던 것이다.

21) 《宋詩選註》人民文學出版社, 1982, 36쪽 : <哀老婦>前面二十句寫一個六十多歲的老寡婦, 迫於賦稅差役, 只好跟兒孫分別, 重新嫁人. — 前面講的是杜甫<石壕吏>、<垂老別>所沒寫到的慘況.

李觀은 이 시를 통해서 가혹한 정치에 시달리는 백성들과 고통을 같이하면서 仁政이 베풀어지기를 간곡히 소망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의 <穫稻>²²⁾ 시에서도 농촌 여인의 고달픔이 생생하게 그려지고 있다.

朝陽過山來,	아침 해 산을 넘어오면
下田猶露濕.	밭으로 나가서 이슬에 젖네.
餽婦念兒啼,	음식 내온 여인은 우는 아이 생각나서
逢人不敢立.	사람들 만나도 감히 멈추어 서지 못하네.
靑黃先後收,	익지 않은 푸른 벼와 누렇게 익은 벼를 가려 거두고
斷折僂偻拾.	꺾인 벼는 허리 굽혀서 줍네.
鳥鼠滿官倉,	새와 쥐는 관가 창고에 가득하건만
于今又租入.	오늘도 세금으로 내네.

이 시에서도 새벽에 음식을 장만하여 밭에 나가 일을 하면서도 집에 두고온 아이를 절절히 걱정하는 여인의 모습이 생동감있게 다가온다. 제7,8구에서는 피땀 흘려 농사지어 세금으로 바친 곡물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고, 새와 쥐의 먹이가 되도록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관리들에게 분노하고 있다.

또한 당시 백성들의 고통스런 삶은 흉년은 물론이고 풍년에도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喜雨>²³⁾ 시가 이러한 고난의 상황을 대변해주고 있다.

人皆喜膏澤,	사람들은 모두 단비에 기뻐했거늘
我獨憂豐年.	나는 혼자 풍년이 걱정되네.
歲凶已賤糶,	흉년에도 이미 싼값에 내다팔았으니
年豐安得錢.	풍년이라한들 어찌 돈을 얻을 수 있으리오!
賦役忽驚駭,	세금과 부역으로 갑자기 놀라지만
倉廩甘棄捐.	창고에서는 달갑게 수매하지 않고 내버려두네.
銖銅苟可換,	푼돈으로 겨우 바꿀 수 있을 뿐
富貴寧我憐.	부귀한 자들이 어찌 이 몸을 가련하게 여기랴!
歸來官事了,	관청 일이 끝나 돌아와서

22) 《李觀集》381쪽.

23) 《李觀集》383쪽.

相弔柴門邊。
農夫未盡死，
穀價應常然。
王心幸仁聖，
分職當忠賢。

사립문가에서 서로 위로하네.
농부들이 아직 다 죽지 않았으니
곡물 가격은 응당 여전하네.
왕의 마음은 어질고 성스러움을 베풀어야 하고
職策을 나누어야 충성스럽고 어질게 되는 법.

제 1,2구의 '사람들은 모두 단비에 기뻐했거늘, 나는 혼자 풍년이 걱정되네.' 라는 묘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단비가 풍년의 조짐을 보여주므로 당연히 반겨야 하는데도, 李觀 시인은 풍년을 우려하고 있다. 관가에서도 제값에 구매하지 않으니, 풍년이라한들 돈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인 것이다. 제 13, 14구에서는 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직책을 분산함으로써 仁政을 베풀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北宋 당시 백성들은 가혹한 정치로 인하여 고통을 감내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로 인하여 삶의 고난이 배가되었던 것이다. 李觀은 이러한 자연재해가 초래한 삶의 역경을 <甘露亭詩> 24) 속에서도 반영하였다.

乾坤父母莫匪慈，
胚胎億兆成角羈。

하늘과 땅 부모는 자애롭지 않은 적이 없어
억조창생을 낳아서 남자와 여자를 이루었네.

南川上游號沃野，
景佑丙子嘗凶饑。
新田始苗舊穀罄，
十室八九無晨炊。

남천 상류는 비옥한 들판으로 불리웠거늘
경우 병자년에 일찍이 흉년이 들어 굶주리게 되었네.
새 밭에 모를 심어 수확한 곡식은 이미 다 없어지니
열 집에 여덟, 아홉 집은 아침에 밥을 지을 수 없네.

煙煤刷天雨汁黑，
嘔山泄谷爭奔馳。
橫流一夜打城郭，
萬弩竊發穿毛皮。
東隅有洲尸擗揖，

그을림이 하늘을 덮으니 진눈깨비가 검게 내려
산과 골짜기에 넘실넘실 다투어 바빠 흘러가네.
밤새 제멋대로 흘러 넘쳐 성곽을 치니
쇠뇌 만 개를 몰래 쏘아 모피를 뚫는 듯하네.
동쪽 모퉁이 모래섬에는 시신이 많아

24) 《李觀集》399-400쪽.

如蟻欲走遭水圍。 마치 개미가 물 주위를 한 바퀴 빙 돌려고 하는 듯하네.
 屋根無力樹腰折, 집 대들보는 힘이 없고 나무 밑둥은 꺾이고
 蛟蜃食人猶擇肥。 교룡이 사람을 잡아먹는데 살찐 것을 고르는 듯하네.
 濤波一望萬山阻, 한 눈에 바라보니 파도에 온산은 험하고
 六親不得相扶持。 육친 조차 서로 의지할 수 없네.

이 시는 北宋 仁宗 景佑 3년(1036)에 발생한 南川 上游의 큰 水災를 소재로 하여 백성들이 겪은 갖은 苦楚를 생생하게 묘사하면서 동정을 나타내고 있다. 흉년이 들어 굶주림에 허덕이는 백성들에게 설상가상으로 수재가 몰아쳐, 거주 공간마저 쓸어버리고 심지어 수많은 생명마저 빼앗아가버린 慘狀을 목도한 시인은 시를 통해서라도 백성들과 아픔을 같이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李觀은 水災뿐만 아니라 旱災로 인한 백성들의 곤궁도 매우 심각하였음을 <閱雨詩>²⁵⁾를 통하여 표출하였다.

吳江之南,	오강의 남쪽은
是曰豐國.	풍성한 지역이라 말하네.
五種之生,	오곡이 생산되어
天下食.	천하가 먹는다네.
一歲不登,	한 해 얻지 못하니
吾民菜色.	우리 백성들은 누르스름한 얼굴빛이네.
如何天不仁,	어떻게 하늘이 어질지 않아서
縱彼旱孽稱其神.	旱災를 제멋대로 내버려두니 신이라고 칭할 수 있으랴!

我聞皇穹大德在生育,	이 몸은 하늘의 큰 덕은 생육에 있어
愛養萬物同嬰兒	만물을 갓난아이처럼 사랑한다고 들었네.
產民之身賦民食,	백성의 몸을 낳아 백성에게 먹을 것을 주다가
中道絕之何所爲?	중도에 끊어버리면 무엇을 하란 말입니까?

上帝當軒親戒勅,	상제께서는 궁전에 남시어 친히 조서를 내리셔서
十日一雨無愆期.	십일에 하루 비가 오도록 하는 기일을 어기지 마소서.
帝心仁且信,	천제의 마음은 어질고 믿음이 있으시니

25) 《李觀集》398쪽.

臨下固不疑。
謂言庶事有分職。
屏去視聽思無爲。

백성을 다스리시는 데 당연히 의심이 없을 것이오.
모든 일에는 나누어진 직책이 있다고 하던데
보고 듣지도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 하네.

弄天之權侮人命。
貪嗜牛羊邀祭祀。
忽焉一物不稱情。
因教此旱災生靈。

하늘의 권한을 제멋대로 부려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고
소와 양을 탐내 즐기어 제사를 지내네.
소홀히 한 가지 일도 인정에 맞지 않고
이러한 가뭄으로 백성을 재난에 빠뜨렸네.

帝在紫微垣。
下隔千里雲。
徒勞銜血向空哭。
帝心雖聖安得聞。

상제는 궁궐 울타리에 있어
아래 세상과 천리 구름으로 떨어져 있네.
헛되이 피를 머금고 하늘을 향해 우는데
상제의 마음 성스럽다 하지만 어찌 들을 수 있으리오?

皇穹如未察凶邪。
空使小臣心鬱結。

황궁은 흉사를 아직 살피지 않은 것 같으니
부질없이 비천한 신하의 마음을 울적하고 답답하게 하네.

이 시는 七言을 위주로 四言·五言·八言·九言을 섞은 古風體로서, '以文爲詩'의 전형적인 작품이다. 上帝의 형상에 황제를 투영하여 民生의 어려운 처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罹災民을 구제하지 않는 조정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다. 토질이 비옥한 강남 지역마저 가뭄으로 천하를 굶주림에 허덕이게 하는 황제에게 구제 정책을 시행할 것을 간곡히 直言하고 있다. 만백성이 피를 머금고 황제를 향해 하소연하지만, 황제는 귀를 열지 않으니, 시인의 마음은 울적하지 않을 수 없음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 시는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산문투의 古風體로써 간명하고 세련되지 못하다는 비평을 면할 수 없겠다. 그러나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上帝의 형상에 황제를 투사하여 풍부한 상상력을 발휘하여 내용을 전개함으로써 주제를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내릴 만하다.

또한 자연재해는 토착민들로 하여금 고향을 떠나게 할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을 초래하였음을 다음의 <送流人>²⁶⁾ 시가 입증해준다.

26) 《李觀集》434쪽.

人情自古怕遷移，	인정은 예로부터 옮기기를 두려워하는 법인데
更去南方路險巖。	게다가 험준한 남방길로 떠나네.
從此異鄉誰是侶，	앞으로 타향에서 누구와 벗이 되려나?
只應明月解相隨。	단지 응당 밝은 달만이 서로 동반해주리라.

고향을 떠나 낯설고 험한 타향으로 향하는 사람을 전송하면서, 타향에서 인정을 나눌 만한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우리라는 염려가 매우 크다.

功利主義 文學觀을 지닌 李觀은 당시 北宋의 모순된 사회 현상을 진단하고 이를 시 속에 낱낱이 반영하였던 것이다.

3.2 爲政者 批判과 사회 문제 폭로

李觀은 范仲淹의 주도한 慶曆新政을 옹호한 개혁사상가로서, 시를 통해서도 국가의 失政을 비판하고 현실 개혁의 政治理想을 표출하였던 것이다. 李觀가 살았던 北宋時代는 對內外的으로 많은 난관에 직면하고 있었다. 즉 對內的으로는 官界의 腐敗와 冗官·冗兵 등으로 인하여 財政의 破綻을 초래하고 있었으며, 大土地私有制의 확대로 말미암아 流民·流賊이 발생하는 鄉村社會의 분해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對外的으로는 遼·西夏와 대치된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무사안일한 국방정책으로 인하여 침략당할 수 밖에 없었고, 굴욕적인 외교 관계로 매년 무거운 歲幣를 바쳐야 하였다.

李觀은 이러한 失政을 시 속에서 비판하였는데, 먼저 약화된 국방력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贈韓侍禁> 27)에 주목하여 보자.

閩關山西舊將家，	공훈 많은 산서의 옛 장군 가문엔
一官淪落向天涯。	한 관리가 쇠망하여 하늘 끝을 향하네.
目皮相處應難識，	겉모습으로는 응당 알아보기 어렵지만
腴肉生來只自嗟。	넓적다리 굵어졌으니 단지 스스로 한탄할 뿐이네.

27) 《李觀集》455-456쪽.

野囿幾年饑虎豹,	간혀진 동산에서 몇 년이나 범과 표범을 굶주리게 하고
旱雷何日起龍蛇?	여름 우레가 언제 용사를 일으키려나?
吳歌楚舞時相慰,	오나라의 노래와 초나라의 춤으로 때때로 위로하는데
劍鋏梅乾鐵有花.	칼자루 매화는 마르고 쇠에는 꽃이 피었네.

장군 가문의 유능한 명장이 重用되지 못하는 用人政策을 비판하고 있다. 제4구의 '넓적다리 굶어졌으니 단지 스스로 한탄할 뿐이네.' 는 劉備의 고사²⁸⁾를 인용하여, 발탁되지 못해 戰功을 펼치지 못하는 명장의 한탄스런 모습이 생동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제5구에서도 동산에 갇힌 범과 표범의 굶주림은 바로 하루속히 전투에 나가 공훈을 세우고 싶은 명장의 소망의 표출인 것이다. 또한 <題虞侍禁山亭>²⁹⁾ 시에서도 '가련하게도 전술에 뛰어난 명장이 시내와 산의 주인이 되고 말았다.(可憐韜略眞名將, 猶與溪山作主人.)' 라고 하면서 진취적이지 못하고 무사안일에 빠진 武將들을 비판하였다.

다음의 <感事>³⁰⁾ 시에서는 안일한 국방정책에 일침을 가하고 있다.

太平無武備,	태평스럽게 전쟁 준비를 하지 않으니
一動未能安.	한번 동란이 나면 편안할 수가 없네.
廟算何時勝,	조정의 계략으로 언제면 이길까?
人生到處難.	사람 살아가는 도처에 어려움이네.
役頻農力耗,	부역이 빈번하니 농사지를 힘은 다하고
賦重女工寒.	세금이 무거우니 여공은 빈한하네.
只有盱江守,	단지 우강의 수령만이
憐民不愛官.	백성들을 가련하게 여기며 벼슬을 좋아하지 않네.

무사안일하게 전쟁 준비를 하지 않는 조정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자태에 분노하면서, 전쟁으로 초래된 백성들의 고달픈 삶에 동정을 표시하고 있다. 제7, 8구에서는 盱江(현재 江西省에 있는 강) 수령의 愛民事蹟을 칭송하면서 爲政者

28) 蜀의 劉備가 오랫동안 말을 타지 않아 넓적다리가 굶어졌음을 한탄한 고사를 인용한 것으로, 重用되지 못하여 공명을 이룰 기회가 없음을 한탄한 말.

29) <李觀集>458쪽.

30) <李觀集>407쪽.

들에게 민본사상을 實踐躬行할 것을 고취하고 있다.

李觀는 또한 <聞喜鵲>³¹⁾ 시를 통하여 阿附에 눈과 귀가 멀어 直諫을 수용하지 못하는 우매한 위정자들에게 각성을 촉구하였다.

翩翩者鵲何品流,	훤훤 나는 까치는 어떤 품종일까?
羽毛白黑林之幽。	깃털은 흰색 검정색, 숲 깊은 곳에 산다.
生平智力可料度,	평소 지력을 헤아려보건대
有巢往往輸鳴鳩。	둥지를 왕왕 산비둘기에 뺏긴다. ³²⁾
天然却會報人喜,	천성이 사람들에게 희소식을 알린다고 하는데
愚兒幼女唯爾求。	어리석은 사내아이와 어린 계집애들만 그 소리 바란다.
萬聲千噪幾曾驗,	온갖 지저귀는 소리 일찍이 검증은 되지 않았어도
聞者終是軒眉頭。	듣는 자들은 끝내 (기분이 좋아) 눈살을 편다.
從來鳥鳥愛反哺,	여태까지 까마귀는 반포를 사랑하는데
孝慈情性誰可儔。	효도와 자애의 성정을 누가 좇을 수 있겠는가!
其間於事最先見,	일에 대하여 신경지명에 가장 뛰어나는데
告人凶禍令人憂。	사람들에게 흉악한 화를 알려줘서 걱정하도록 한다.
憂時不肯自修飾,	때를 걱정하여 기꺼이 스스로 꾸미지 않고
禱請神鬼爭啾啾。	귀신을 청하여 빌면서 다투어 망령이 우는 소리를 낸다.
告之愈驗愈見惡,	알려줘서 맞아떨어질수록 더욱 미움을 사는데
共云災患鴉之由。	모두 災禍가 까마귀에게서 연유했다고 말한다.
彈丸瓦石相驅逐,	탄환이나 기와, 자갈로 쫓아내는데
名園佳樹難依投。	이름난 정원이나 아름다운 나무에는 던지기가 어렵다.
忠言逆耳世罕用,	충언은 귀에 거슬려서 세상에서 수용하는 것이 드문데
屬鑊曾割伍員喉。	속루 검으로 일찍이 오자서의 목을 베도록 하였다. ³³⁾
莫笑後來司馬公,	후에 사마휘를 비웃어서는 안되리
事事稱好眞良謀。	일마다 좋다고 한 것이 정말 좋은 모책이었으니. ³⁴⁾

31) 《李觀集》402쪽.

32) ‘鳩居鵲巢’라고 하여 비둘기는 제 스스로는 집을 짓지 않고, 까치의 둥우리에 들어가 산다고 한다.

33) 吳王 夫差는 伯嚭 등이 伍子胥가 濟나라와 결탁하였다는 참언을 믿고 伍子胥에게 속루(屬鑊)의 검을 주어 자결을 명했다.

34) 司馬徽는 누가 어떤 사람에 대해 인물평을 부탁하거나, 일에 대해서 물으면, 매번 “좋지, 좋아.”라고만 대답하였다. “좋지, 좋아.”를 하도 남발하니 그의 별명이 ‘好好先生’이 되었다.

이 시에서는 가치와 까마귀를 대비시켜 阿附하는 신하와 直諫하는 신하의 형상을 投影하고 있다. 가치가 와서 올면 희소식을 가져다 준다는 속설을 믿는 어리석은 사내아이와 어린 계집애의 형상에, 주관적인 판단력 없이 듣기좋은 아부에 현혹되어 國事를 그르치는 위정자들을 投射하고 있다. 또한 까마귀가 와서 요란하게 지저귀면 흉악한 화를 미치게 한다는 속설을 믿고 까마귀를 미워하며 내쫓는 사람들의 형상에, 直諫을 듣기 싫어하며 물리치는 愚昧한 위정자들을 투영하고 있다. 끝 부분의 제19, 20句에서는 伍子胥를 까마귀의 형상에 기탁하여 伍子胥의 直言을 묵살함으로써 패망에 이른 吳王 夫差의 昏愚를 비판하고 있다. 제 21, 22句에서는 일마다 좋다고 한 司馬徽의 謀策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好惡에 대한 주관적 판단이 없는 司馬徽의 행태를 反語的으로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李觀은 또한 시를 통하여 北宋 당시 불교가 사회에 초래한 危害의 심각성을 표출하였다. <答緣概師見示草書千字文并名公所贈詩序>³⁵⁾ 시에 주목하여 보자.

佛繇西域漸中土,	불교는 서역에서 중원으로 흘러들어와서
欲使群心皆鼓舞。	군중들의 마음을 모두 고무시키려 한다.
若顯梵語及胡書,	범어와 오랑캐 서적이 전횡을 부려
昧者雖從明孰與。	우매한 자들은 비록 좃지만 어떻게 밝을 수 있으리오!
其徒往往多材能,	그 무리들은 왕왕 재능이 많아
暗結時賢爲外助。	암암리에 당시 賢者와 결탁하여 밖에서 돕는다.
遠公自昔來廬山,	원공은 옛날 여산에 온 이래
誇逞蓮花邀社侶。	연꽃을 번성하게 하여 蓮社의 승려들을 불러들였다. ³⁶⁾
吁嗟君子遭亂邦,	아아! 군자들이 어지러운 세상을 만나
舍此未知何處去!	이것을 버리고 어디로 갈 줄을 모르는구나!

35) <李觀集>400-401쪽.

36) 遠公은 晉의 高僧 惠遠을 가리키는데, 遠公은 당시 승려 120여 명으로 蓮社를 조직하여 포교활동을 추진하였다.

이 시는 西域에서 불교가 들어와서 사회에 끼친 악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제3, 4구에서는 불교의 교리가 우매한 많은 백성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제5, 6구에서는 위정자들을 賢者라고 反語的으로 묘사하면서, 불교가 위정자들과 결탁하여 정치를 그르치고 있다고 분노하고 있다. 제9, 10구에서는 儒家들 마저 佛家思想에 심취하여 갈피를 찾지 못하는 현실을 염려하고 있다. 이 시는 그가 <富國策 第五>³⁷⁾에서 '세상 사람들은 가난을 걱정하지 않으면서 은혜가 미치지 않음을 걱정하고, 惡行을 염려하지 않으면서 佛道를 닦지 않음을 염려하는데, 그럼으로써 백성들의 재산은 다 없어지고, 나라의 비용도 없어지고 만다.(俗不患貧而患不施, 不患惡而患不齋, 民財以殫, 國用以耗)'고 표명한 우려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李觀는 또한 <丐僧>³⁸⁾ 시에서도 이러한 불교가 초래한 폐단을 밝혔다.

靡靡步康衢,	느릿느릿 변화한 거리를 걸으며
喋喋問流俗。	거침없이 유숙을 묻네.
誰將今日財,	누가 오늘 재산을 가져가서
愿易來世福。	쉽게 복을 받길 원하나?
休論身善惡,	몸의 선함과 악함은 논하지 않고
佛眼重金玉。	부처의 눈에는 금과 옥을 소중히 여기네.

제1, 2구에서는 속세를 초탈해야 하는 승려들이 속세에 물든, 타락한 불교의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다. 제3, 4구에서는 재산을 바치면 복을 쉽게 받을 수 있다고 유혹하는 불교의 작태를 비판하고 있다. 제5, 6구에서는 백성들에게 선행을 인도해야 하는 승려들이 세속적인 재물에 눈이 어두운 불교계의 비리를 폭로하고 있는 것이다. 李觀는 무신론자로, 불교와 도교에 대하여 극력 배척하였다. 漢, 魏이래 불교와 도교는 통치자의 제창 아래 점점 발전해 나갔는데, 北宋에 이르러 특히 眞宗의 창도 아래 산림에는 사찰과 道觀이 더욱 증가하였다. 李觀는 불교와 도교를 믿으면 十害가 있고, 배제하면 十利가 있다

37) 《李觀集》140-142쪽.

38) 《李觀集》396쪽.

고 지적하였다. 불교와 도교를 배제하는 것이 백성들로 하여금 본업을 즐기도록 하여 국가가 부강하는 萬世之策이라고 주장하였던 것이다.³⁹⁾

李觀은 直諫을 기꺼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리석은 爲政者들, 안일한 국방 정책, 불교의 危害 등을 직접 목격하고 이러한 부조리한 사회 현상을 그의 시 속에서 통렬히 고발하였던 것이다.

4. 결론

本稿는 北宋 시대의 사상가·교육가인 동시에 文人인 李觀의 기존 연구 분야가 주로 정치·경제·교육·철학·국방 등의 사상적 측면에 치우친 반면, 문학적 측면에서의 연구는 미미하게 진행됨으로 말미암아 李觀의 문학적 위상이 제대로 자리매김하지 못한 점에 착안하여 집필의 동기를 잡았다. 따라서 李觀의 문학적 평가의 선행단계로 그의 文學觀을 고찰하고, 社會詩의 내용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다.

첫째, 李觀은 문학의 功用性を 높이기 위하여 儒家의 政教中心說 詩觀을 계승하고, 문학은 사회의 諸現象을 照明, 비판하는 사회 功用的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功利主義 文學觀을 제창하였다. 또한 西崑派의 浮艷한 경향을 반대하고, 詩文의 文以載道를 중시하며 詩文의 내용을 형식보다 우선시하였다. 아울러 通變救弊의 정치사상을 지닌 李觀은 당시 문단의 因襲模倣을 비판하고 詩文의 變革創新을 주장하였다.

둘째, 功利主義 文學觀을 지닌 李觀은 北宋의 모순된 사회현상을 진단하고, 시를 통하여 가혹한 정치를 비판하고 民生苦에 共感을 표시하였다. 또한 사회 현상을 사실 그대로 생동감 있게 묘사하여 사회시의 핵심적 요소인 事實性에 충실하였다는 점에서 그의 사회시를 높이 평가할 수 있겠다.

39) <王國軒 自序>, 《李觀集》11쪽.

셋째, 李觀은 시를 통하여 對內外的으로 많은 난관에 직면하고 있던 北宋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失政을 비판하였다. 즉 시 속에서 안일한 국방정책으로 인하여 약화된 국방력에 대한 우려, 阿附에 눈과 귀가 멀어 直諫을 수용하지 못하는 愚昧한 爲政者들에 대한 각성 촉구, 불교로 초래된 폐단 등을 지적하였다. 이는 바로 그의 功利主義 文學觀을 體現한 것이라고 하겠다.

< 參考文獻 >

- 王國軒 點校, 《李觀集》, 中華書局, 1981.
- 姜國柱, 《李觀評傳》, 南京大學出版社, 1996.
- 謝善元, 《李觀之生平及思想》, 中華書局, 1988.
- 錢鍾書, 《宋詩選註》, 人民文學出版社, 1982.
- 손정민, 《宋代 『孟子』 論辨 研究》, 성균관대학교대학원, 석사논문, 2014.
- 吳智昌, 《李觀詩歌研究》, 南昌大 석사논문, 2007.
- 段守艷, 《李觀詩歌研究》, 山東大 석사논문, 2008.
- 歐婷婷, 《李觀詩歌創作研究》, 廣州大 석사논문, 2009.
- 羅春宏, < 試論李觀詩歌的思想內容 >, 南昌大學報(인문사회과학판) 제41권 專輯.
- 胡迎建, < 論李觀的詩 >, 撫州師專學報 제21권 제4기.
- 吳晟, < 李觀詩歌概觀 >, 撫州師專學報 제21권 제3기.
- 王群, < 沈思 吶喊 探索 — 試析北宋思想家李觀的詩歌創作 >, 撫州師專學報 제21권 제4기.
- 王春庭, — < 論李觀的文學觀 >, 漳州師範學院學報(철학사회과학판), 총제45기.
- _____, — < 論李觀的農村詩 >, 撫州師專學報 제21권 제4기.
- 王曉薇, < 李觀的性命論及其排佛思想 >, 아시아문화연구, Vol.9, 2005.
- 姜吉仲, < 李觀의 現實認識과 吏治法 改革論 >, 동양사학연구, 제120집.
- 이상선, < 李觀의 通變思想 >, 동양철학 제18집.

< 中文提要 >

李觀是宋朝乃至整個中國歷史上著名的思想家、教育家，在文壇上也是一位詩、文俱佳的文學家。他秉承儒家傳統的文學觀，重視文的政治功用和文對人的教化作用，反對浮麗文風；倡導風雅傳統，要求詩文創作關注現實、具有批判現實精神；針對當時文壇陳陳相因的風氣提倡詩文變革創新，反對因襲模倣。表達功利主義文學觀的李觀直視當時矛盾的社會現象，用詩來揭露了當時之社會現實，同情弊政所引起的民苦，暴露官方的腐敗，批判佛教的弊端。他的社會詩將功利主義文學觀在實踐中加以淋漓盡致的體現。他的內容豐富，特別是有關民生、失政批判等內容適社會詩，即深刻的反映了現實。他對老百姓採取比較同情的態度。他相當逼真的描寫了老百姓的痛苦生活。他對社會現實採取批判的態度，並且把批判的矛頭直接指向統治集團自身。

關鍵詞：李觀、功利主義文學觀、社會詩、批判失政、憂國憂民。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4. 12. 29.	2015. 1. 21.	2015. 2. 5.	2015. 2. 13.	2015. 2. 28.